

# 열정 가득한 연극축제 열린다

## 광주 학생연극제

9~18일 유·스퀘어 문화관 동산아트홀  
금호고·전남여고 등 10개교 참여

제29회 광주학생연극제가 9일부터 18일까지 유·스퀘어 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연극제는 유·스퀘어 문화관과 광주연극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광주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의 연극 축제다.

'광주학생연극제'는 그간 청소년들의 희곡문학과 공연예술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광주 연극의 발전에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연극제에는 광주 지역 고등학교 총 10개 팀이 참여해 10일 동안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9일 전대사대부고의 '방황하는 별들'을 시작으로, 10일 금호고 '마지막 이벤트', 11일 상일여고 '뽕뽕', 12일 광주제일고 'HOME'이 이어진다. 또 13일 성덕고 '난 혼자야', 14일 전남고 '꿈 꾸러기', 15일 문정여고 '아가시아 꽃잎은 떨어지고', 16일



지난해 열린 제28회 광주학생연극제 공연 모습.

광주동신여고 '우리집이야', 17일 전남여고 '높은 소녀들의 왕국'을 올린다. 마지막 무대는 18일 장덕고의 '우아한 거짓말'로 마무리한다.

모든 공연은 오후 7시30분에 시작하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제29회 광주학생연극제 시상식은 18일에 열리며, 우수한 팀은 제22회 전국청소년연극제 본선에 자동 출전하게 된다.

지난해 열린 제 28회 광주학생연극제에서는 전남 여고(교장 강정란)의 '보도지침'이 대상을 수상해 전국청소년연극제 본선에 광주대표팀으로 참가했다.

한편, 유·스퀘어문화관은 지난 2013년 한국연극협회와 '광주학생연극제'에 관한 후원협약을 맺고 예술활성화를 위해 공연장 무료 대관 등을 지원하고 있다. 문의 062-360-8433.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오늘은 나도 예술가”

담빛예술창고 '인터랙티브 아트-공감지대'  
문창환·이병찬·이청하·최순임 작가 참여

'관람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미술작품.'  
(재)담양군문화재단 담빛예술창고(관장 장현우)가 오는 7월1일까지 '2018 인터랙티브 아트 청년작가 공모전-공감지대'를 진행한다.

인터랙티브 아트(쌍방향 소통예술)는 관람객이 작가의 작품에 함께 완성시켜가는 예술이다. 담빛예술창고는 "융복합 예술을 통해 기존의 단순 전시공간만이 아닌, 관객이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인터랙티브한 체험예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지난 2월부터 인터랙티브 아트 청년작가 공모를 진행해온 담빛예술창고는 문창환·이병찬·이청하·최순임 등 4명의 작가를 선정했다. 이들 작가는 각자 추구해온 기존의 조형 예술 영역에, 과학적·기술적·시각적·청각적 효과를 가미한 다양한 설치작품을 통해 관객과의 소통을 추구한다.

문창환 작가는 옛 사당의 개념에서 떠올린 가상의 공간을 만들었다. 레이저 빛으로 구획을 설정한 후 관객이 그 공간을 드나드는 경험을 하도록 했다. 이청하 작가는 빛을 움직여 또 다른 상을 그려내는 그림자놀이 체험을 제공한다. 작가는 철사를 구부려 만든 조각상을 세워놓고 관객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휴대폰 빛을 비출 때 만들어지는 자기만의 이미지를 즐기게 된다.

최순임 작가는 다양한 몸짓의 고양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입체 작품에 동화적 상상력을 입힌 'merry-go-round' 연작을 선보이고 있다. 관람객이 다가서면 오르골이 작동하거나 LED 빛줄기가 쏟아지기도 해 유쾌하게 관람할 수 있다. 이병찬 작가는 생태계를 뒤덮고 있는 플라스틱과 비닐이라는 간편 일회용품과 저가 가짜상품들을 허공에 매달아 놓은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문의 061-383-824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최순임 작 '내가 지켜줄게'  
▼ 이병찬 작 '초면(初面)'

## 민중화가 허달용 노무현 추모전

13일까지 소촌아트팩토리 큐브미술관

민중화가 허달용 초대전이 오는 13일까지 광주 시 광산구 소촌아트팩토리 큐브미술관에서 열린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9주기 추모 전시로 마련된 기획이다.

허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노 전대통령을 소재로 한 작품과 함께 오랫동안 천착해온 수묵채색화 20여점을 선보인다. "나는 진정 왜곡된 세상의 본질적인 굴절을, 민중의 참 모습을 그려왔는가?" 뒤돌아보며 "민중의 진경(眞景)을 그리기 위한 변모의 시간"이 다가옴을 느끼는 작가의 고민들이 배어 있는 작품들이다.

전시 타이틀이기도 한 작품 '산이 된 바보' (207×75cm)는 노 전대통령이 서거한 2009년 그린 작품으로 지긋이 고개 숙인 노 대통령의 얼굴에서 고뇌가 묻어난다. 서거 소식을 듣고 슬픔으로 한동안 붓을 잡을 수 없었던 허 화백이, 마음을 다 잡고 단숨에 그렸다는 수묵화다. 작가는 "그린 것이 아닌, 무엇에 홀려 그린 듯 누가 내손을 빌려서 한 것처럼 그려졌다"고 작품에 대해 밝혔다.

검은색 수묵화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도 눈에 띈다. 화면 중앙에 버티고 선 나무와 그 사이로 내리는 비를 번짐 효과로 풀어낸 '장마', 대나무를 소재로한 '흔든' 등이 대표적이다. 그밖에 붉은 빛 배경 아래 정면을 응시하는 자화상 '연서(戀書)', 하늘 위로 겹겹이 쌓인 노을을 다양한 색감으로 풀어낸 '붉은 하늘' 등 강렬한 채색화도 인상적이다.

전남대 예술대학을 졸업한 허 작가는 광주민예총 회장, 민미협회원으로 활동중이며 20여차례 개인전과 '오월전' 등 다양한 그룹전에 참여했다. 문의 062-960-3688. /김미은 기자 mekim@



'산이 된 바보'

## 수묵 담채 매력에 빠져볼까

김영의 '남도 바다를 향진하다'展  
14일까지 유·스퀘어 금호갤러리

국당 김영의 작가 첫번째 개인전이 8일부터 14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열린다.

'남도 바다를 향진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김 작가는 시원한 필치의 사군자 등 수묵 담채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대담한 붓질이 인상적인 '파초' 시리즈를 비롯해 차를 마시고, 동백꽃 나들이를 가는 등 생활 속에서 길어올린 소재들을 간결하게 표현해낸 작품이 눈길을 끈다. 또 '질레꽃' 연작과 '개망초' 등의 작품은 화려한 수묵채색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림이다.

현재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에 근무중인 김 작가는 사원 박태후 선생에게 사군자를 배우기 시작하며 문인화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퇴근 후 자정까지 붓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해온 김 작가는 자신만의 시선을 담아 작품을 완성해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광주 미술대전, 전남도 미술대전 등에서 특선 입상했으며 현재 산묵회,



'개망초'

죽실현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오프닝 행사는 8일 오후 6시다. 문의 062-360-8432. /김미은 기자 mekim@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

내 집 같은 편안함!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건강한 우리 음식 **한정식** 30년 전통의 한정식, 평일 주중 오찬 정식

알찬 행사를 위한 **연회장** 세미나를 위한 영상 시설이 갖춰진 중·소규모의 연회장

광주 **맛집** since 1981 37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 **금수장호텔** GEUMSOOJANG HOTEL